



삼표그룹, 취업준비 청년 응원 프로젝트

삼표그룹이 청년의 날(9월16일)을 맞아 성동청년플랫폼과 함께 서울 성동구의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응원 프로젝트인 '꿈 많은 너를 응원해'를 진행한다.



마사회, 스포츠말 품평회·어린말 승마대회 개막

한국마사회가 주최하는 '제12회 스포츠말 품평회'와 '제10회 어린말 승마대회'가 지난 12일 경북 상주 소재 국제승마장에서 막을 올렸다.



인하대, 하와이 이주 120주년 기념 특강

인하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최근 하와이 이주 120주년을 기념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FISITA 차기회장에 김창환

현대차·기아 배터리개발센터장

김창환 현대차·기아 배터리개발센터장(사진)이 한국인 최초로 세계 38개국 자동차공학회 연합체 회장으로 활동한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개발센터장과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장을 겸직 중인 김창환 전무가 세계자동차공학회연합체(FISITA)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양성운 기자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김성은
◆성신여대 △미래인재처장 이성기 △학술정보원장 김연식
◆신아일보 △광고국장 송원철

부음

▲최명관(동해시의회 부의장)씨 별세, 박신영씨 남편상, 최수지·최진호씨 부친상 = 13일 오전, 동해중앙장례식장 3층 VIP분향실,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동해시 하늘정원. 033-521-3700

LG화학, 독일에 '유럽 CS센터' 오픈... 지위 강화

500억 투입 프랑크푸르트 위치 현지서 기술 솔루션 제공 가능 친환경소재 특화 전담인력 상주



LG화학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 CS센터.

/LG화학

LG화학이 유럽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밀착 지원 강화에 나선다. 유럽 시장은 LG화학이 2005년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지난해까지 매출이 100배 가까이 성장한 '주요 시장'으로 꼽힌다.

LG화학은 13일(한국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에 '유럽 CS센터(Customer Solution Center)'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고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유럽 CS센터 개관을 통해 현지에서 기술 솔루션이 제공 가능한 고객 대응 거점을 구축

해 유럽에서의 시장 지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CS센터는 고객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종합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조직이다.

유럽 CS센터는 2021년 9월부터 약

500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지상 3층, 연면적 약 7400㎡(약 2300평) 규모로 지어졌으며, 압출과 사출 등 고객사 양산 설비 수준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LG화학 측은 "특히 유럽의 주요 고객인 자동차 소재 외에도 재활용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에 특화된

가공 기술 역량을 갖추고 전담 인력이 상주하며 기술지원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학철 부회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유럽CS센터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의성과 혁신의 중심"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고 새로운 성장을 만드는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미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이번 유럽 CS센터 완공으로 한국(오산), 중국(화남, 화동), 유럽(독일)으로 이어지는 고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아와 더불어 유럽 전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됐다. LG화학은 2023년까지 미주 CS센터 설립으로 전 세계 고객 밀착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엠브레인'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

독보적 안전기술 등 공로 인정받아 운전자 뇌파 분석, 피곤·졸음 등 체크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뇌파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엠브레인'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현대모비스는 13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엠브레인이 안전기술대상 최고상에 해당하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등 보급 및 확산에 힘써 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대모비스의 엠브레인은 운전자의 뇌파를 분석해 피곤, 졸음, 부주의 등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다.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질 경우 운전석 시야 주변의 LED, 진동 시트, 헤드레스트 스피커 등을 활용해 시각, 촉각, 청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한다.

엠브레인은 경기도 공공버스에 시범 도입돼 더욱 안전한 대중교통

주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엠브레인 착용 후 버스 운행시 운전부주의 발생 빈도가 25.3% 감소했다. 2021년 10대로 시작해 올해 300대 보급이 이뤄졌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단계적으로 보급량을 늘려 기술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사용자의 마음을 읽는' 엠브레인의 특성에 착안해 아동 심리 상담 지원에도 나섰다. 경기, 인천, 강원 등 전국 6개 아동보



뇌파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엠브레인'을 시연하는 모습.

호기관에 전달돼 심리 상담에 활용되고 있다. 뇌파를 통해 드러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불안 등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 상담 효과를 극대화해준다는 평가다.

/양성운 기자 ysw@

대우건설, 임직원 '헌혈 캠페인' 전개

을지로 본사 앞에 헌혈버스 방문

대우건설은 오는 15일까지 본사와 국내 현장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3 대우건설 헌혈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우건설 임직원이 을지로 본사 앞 헌혈버스를 방문해 참여했다.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헌혈에 참가한 대우건설 직원은 "매년 회사에서 진행하는 헌혈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며 만족을 느끼고, 헌혈 30회를 채워 대한적십자사 은장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포스코인터, 친환경 에너지 팝업북 기부

총 200여권, 학용품세트 전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천 연수구 지역아동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팝업북'을 기부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2일 사단법인 글로벌비전과 '친환경 에너지 팝업북' 200 여권과 학용품 세트를 인천 대표 지역아동센터인 쉼마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

다. 팝업북은 페이지를 펼쳤을 때 숨어 있던 그림과 구조물이 입체적으로 올라와 독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책자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연초 포스코에너지와의 합병 이후 직원간의 화합을 강화해왔으며, 이번 활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팝업북 제작에 참여하며 유대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도 되었다. /양성운 기자

KRX-동아대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

주민 3000여명에 8개 과목 진료

한국거래소는 동아대학교병원과 함께 12일부터 14일까지, 캄보디아 남부 캄푹 주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료봉사단은 평소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지역주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내과, 안과, 치과, 정형외과 등 총 8개 진료과목에 대한 종합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지 의료기관에 자

혈암계, 체성분측정기, 소독기 등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전달함으로써, 봉사활동 이후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소득과 의료수준이 열악한 저개발국가의 주민들은 코로나19 이후 도음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거래소는 해외 의료봉사활동 등 희망을 전하는 글로벌 나눔경연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